

논술고사

고사장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 Part I

문항 및 제시문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Today, anyone can have a voice in the fashion world, for anyone can start a blog no matter the age or the background. As bloggers became a vital part of fashion reality, the distance between traditional influences and them has narrowed. The rise of the blogging phenomenon democratized the industry by bringing it closer to the common people. Fashion shows, which used to be highly exclusive, are now live-streamed* events, often attended by more bloggers than actual industry professionals. Runway* and front-row* pictures are no longer carefully selected by industry authorities, but are spread across the Internet like fire, being immediately posted by bloggers. No longer do bloggers only share their style tips and comments—they share industry insights with millions of their followers. Thanks to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al media, blogging has transformed itself into a profitable business.

Living in the reality powered by technology, we are overloaded by an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and choices every day. As the number of fashion brands offered on the market grows, the level of efforts made to attract customers increases, too. As a result, we are being overwhelmed with a flood of marketing information. Bloggers appear to be a perfect solution as they can guide us and suggest the right ways. In contrast to huge fashion houses and magazines, they are real people to whom we can relate. We are willing to listen to them because we are looking for someone to trust.

* live-streamed: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 runway: 패션쇼의 무대

* front-row: 패션쇼의 맨 앞자리

- Fashionbi, *The Influence of Fashion Bloggers*에서 재구성

<제시문 2>

(앞 줄거리) 이리 떼의 습격을 알리기 위해 망루가 세워진 황야에서 들판을 감시하는 파수꾼들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신호를 보내면 겁을 먹고 대피한다. ‘나’는 망루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나이 든 파수꾼이고, ‘다’는 새로 파견된 어린 파수꾼이다.

다: 조용했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 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구요. 그 틈을 노려 이리 때가 습격해 오면 어쩌나하구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여기저기를 바라보았죠. 아무 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중략]

다: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나: 보렴,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 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중략]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덧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덧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겨 왔으니.

- 이강백, 「파수꾼」, 『고등학교 문학』

<제시문 3>

기술 발전에 힘입어 사회는 정보의 저장, 전달, 공유가 가능해졌으며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정보 사회의 진전도 촉진되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발생했다. 첫째, 정보 격차의 문제가 심각하다. 정보 사회에서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희소하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검색이나 활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 둘째,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윤리 부족 문제이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인터넷상에서 생산·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인이나 집단을 비방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낮은 의식 수준은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 재구성

[문제 1]

<제시문 1>의 요지와, <제시문 2>에서 대답하는 ‘다’와 ‘촌장’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3>을 바탕으로, <제시문 1>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제시문 2>에서 발생한 문제를 각각 서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및 제시문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4>

(가) 과학의 조작주의는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계량할 수 있는 것만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합리성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도구적인 이성으로 축소된다. 기술적 합리성은 인간을 점점 노예로 만든다. 기술은 기계 장치의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인간과 자연을 조작의 대상으로 삼는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과 자연의 착취를 더욱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든다. 과학적 방법은 자연을 수량화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의 지배를 통해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위한 개념과 도구를 가져다 주었다. 대상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계량하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일차원적 사고는 대상을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면까지 바라보는 다차원적 사고를 배제한다. 생산과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모든 사회적 관계도 일차원적 사고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조직된다. 현대사회는 기술을 통해 지배를 계속하고 기술로써 지배를 확대해 간다.

- 마르쿠제, 『일차원적 인간』에서 재구성

(나) 인간은 생존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한다. 그러나 개발 중심의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 중심주의는 우리에게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였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밀림은 갈수록 파괴되고 있으며, 해수면의 상승으로 투발루나 몰디브는 머지않아 지도상에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직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 중심주의 관점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며,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지나친 경제 성장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으며,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고등학교 사회』에서 재구성

<제시문 5>

(가) 과학은 기술을 통해 인간의 생산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 덕분에 인간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편리하고 풍요로워졌다. 자동차, 비행기, 전화, 인터넷 등을 사용하기 이전의 인간은 자연의 주기에 따라 살아왔다. 그러나 자동차와 인터넷에 의존하는 현대의 생활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대단히 빨라졌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누가 어디에 있더라도 바로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 빠른 생활 방식이 일상화 되었다.

농업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그들은 날씨가 좋을지 나쁠지, 가뭄이나 홍수가 있을지, 해충이나 역병이 돌게 될지 등에 대해 걱정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산업 사회라고 해서 자연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하면 자연에 덜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대신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과학·기술이 더욱 복잡하고 세밀해져서 한 개인이 과학·기술과 무관하게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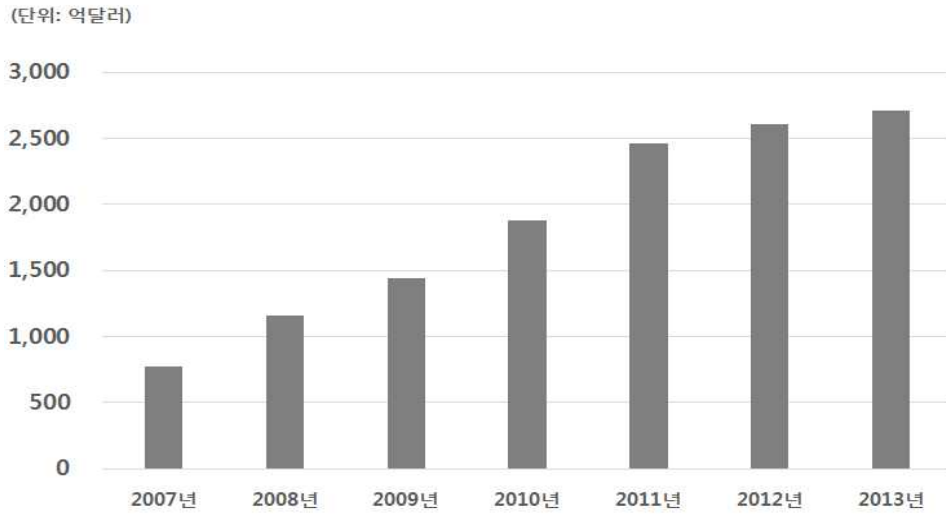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재구성

(나) 동물의 장기를 치료목적으로 인간에게 이식, 즉 이종장기이식으로 부족한 장기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외래 유전자를 주입하여 본래의 유전형질이 변화된 장기를 환자에 맞추어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식방법은 타 분야에 비해 현실적으로 장기 부족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전에 돼지의 신장, 심장, 간, 폐를 다른 동물에게 이식한 결과 이식거부반응이 지연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박정규 외, 「이종장기이식의 현황과 전망」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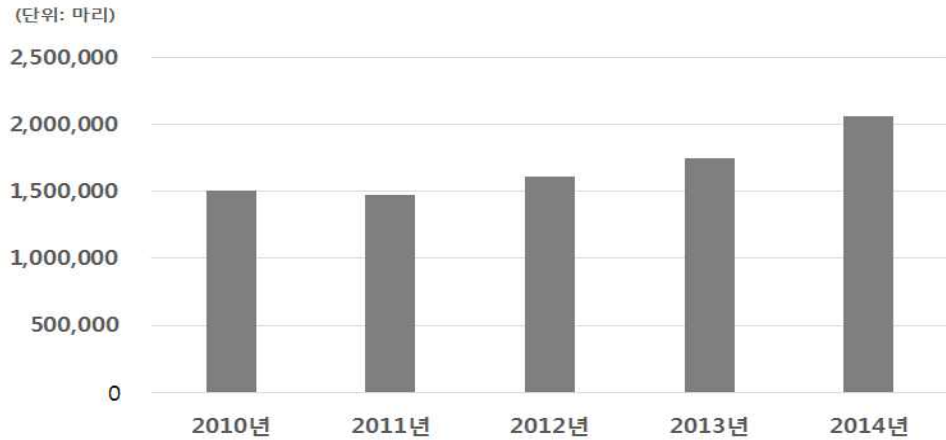
<자료>

[그림 1]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규모



※ 신재생에너지: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킨 친환경 에너지와 햇빛, 풍력, 수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
출처: 연합뉴스

[그림 2] 보건·의료 관련 실험동물 사용 현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문제 3]

과학·기술에 대한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그림 1]을 <제시문 4>의 (나)와 <제시문 5>의 (가)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제시문 4>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림 2]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